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과 장 손주형	02-2100-2860
	산업금융과	사무관 박석훈	02-2100-2864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과 장 정연우	042-481-5258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문은정	042-481-580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4월 17일(수) 오전 10:00 이후 보도 바랍니다.	

제1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금융위원회·특허청·금융기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맞손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17일(수)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제1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P금융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우리나라 IP금융은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IP금융 규모(억원) : ('15) 2,009 → ('16) 3,035 → ('17) 3,679 → ('18) 4,537

* 中소 담보대출비중(금융위원회, '17년) : 부동산 94%, 기타(예금담보 등) 6%, 동산 0.05%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동 종합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를 금융권과 협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IP금융포럼」을 발족하게 됐다.

금융권·산업계·학계 등 40여명의 전문가들이 포럼위원으로 위촉됐으며, IP금융현안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1회 포럼에서는 IP금융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주제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영국의 IP금융 전문가인 Martin Brassell이 ‘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림 교수가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포럼과 더불어, 정부와 금융기관이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 CEO가 참석했다.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총 7개 은행)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혁신금융의 양분이며, 혁신금융은 혁신성장의 토양”이라면서,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기업혁신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IP금융포럼의 창립과 업무협약 체결로 IP금융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포럼 사무국(02-3459-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제1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 개최 및 포괄적 MOU 체결(안)

□ 개최 목적

- 지식재산(IP) 금융포럼 창립 및 운영 개시
- 특허청·금융위·금융기관간의 포괄적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 국내·외 IP금융 전문가 초청을 통한 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1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
(IPFF : 1st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Forum)
- 일 시(안) : ‘19년 4월 17(수), 09:30~14:00
- 개최장소 : 웨스틴조선 서울호텔, 라일락홀(2F)
- 주최/주관 : 금융위원회·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참석대상 : 총 60여명
 - (내·외빈) 금융위원장, 특허청장, 보증기관 이사장, 시중은행* 대표
 -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총 7개 은행)
 - (주제 발표자) 해외 IP금융 전문가, 국내 교수(민법)
 - * (해외 연사) 영국 Inngot社 Martin Brassell (IP금융 전문가)
 - * (국내 연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림 교수
 - (기타 참석자) IP금융포럼 위원 및 관계자

□ 세부 진행계획

○ 진행 프로그램(안)

-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 IP금융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

시 간	내 용
9:30~9:55(25')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9:55~10:00(5')	개회 전 장내 정리
개 회	
10:00~10:15(15')	■ 개 회 사 : 상근부회장(한국발명진흥회)(3') ■ 환 영 사 :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6') ■ 환 영 사 : 특허청장(특허청)(6')
[Session1 : 포괄적 양해각서(MoU) 체결식]	
10:15~10:30(15')	■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10') * 금융위 · 특허청 · 은행 · 보증기관(신보 · 기보) 합동 체결식 ■ 기념사진 촬영(5')
10:30~10:40(10')	장내 정리
[Session2 : 2019 IP금융 포럼 주제발표]	
10:40~11:40(60')	■ 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 및 성과(40') - 지식재산권의 평가, 관리, 회수 중심으로 : Martin Brassell(CEO & co-founder of Inngot) ■ 질의응답(20') : 사회자 진행
11:40~13:00(80')	■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40') : 지원림 교수(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 질의응답 및 토론(40') : 연사 및 포럼위원 자유 토론
13:00~14:00(60')	네트워킹 오찬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주재
폐회 및 정리	

○ 주제별 발표내용

발표 주제	연사	내 용
해외 IP담보대출 사례 및 성과	Martin Brassell (Inngot CEO)	• 미국·영국(유럽)의 IP담보대출 사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의 성과 설명 • IP담보대출에서 지재권의 평가·관리·회수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 • 일괄담보대출의 실행 프로세스와 지재권 이슈
일괄담보제도 도입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동향	지원림 교수 (고려대 법전문)	• 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한 우리나라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방향 및 법적 쟁점을 설명

○ 발표연사 소개

구분	연 사	주요 프로필
해 외	 Martin Brassell (Inngot CEO)	○ 2007~현재 IP평가서비스기업 Inngot社 창업자·CEO ○ Banking on IP, Hidden value a study of the UK IP valuation market 등 저서 다수
국 내	 지원림 (고려대 교수)	○ 前한국민사법학회 회장 ○ 現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법무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T/F 위원